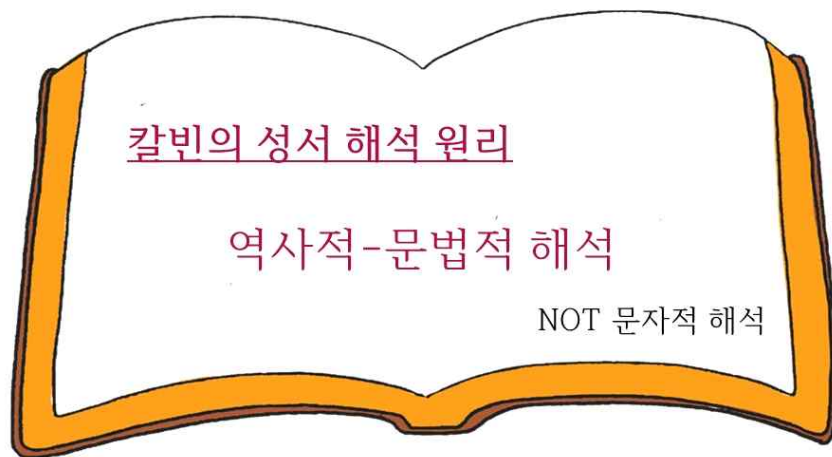


미가서 특강 I

2023년 7월 16일



I . 어떻게 구약성경을 연구해야 하는가?



I . 어떻게 구약성경을 연구해야 하는가?

1. 성서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
2. 성서 본문의 문학적인 면을 감안
3.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성서를 읽지 말아야
4. 성서는 성서가 쓰여진 관점, 즉 신앙의 관점에서 읽어야

Ⅱ. 그렇다면 예언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

1. '예언'이라는 장르에 대한 근본적 인식

2. 성경 예언의 해석에 얽힌 문제점들

- 1) 우리 자신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
- 2) 예언서들에 고유하게 나타나는 문제들

Ⅱ. 그렇다면 예언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

3. '본문의 본래 의미를 찾기 위한 필수적 질문

- 1) 어떤 성경(사본, 역본)을 사용해야 하는가?
- 2) 이 구절의 역사적 상황은 무엇인가?
- 3) 이 구절의 문학적 문맥은 무엇인가?
- 4) 이 본문이 기록되었을 당시 그 단어들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Ⅱ. 그렇다면 예언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

4. 상징을 해석하는 원리들

- 1) 겸손하게 상징에 접근하라
- 2) 이정보다는 상상력이 우선된다는 것을 인식하라
- 3)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찾으라
- 4) 선지자의 목회적 관심사를 찾으라
- 5) 세부사항에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 전체적인 요점을 찾으라

Ⅲ. 미가의 시대적 배경

1. 예언자 미가

모레셋(1:1, 혹은 모레셋가드, 1:14): 농촌 마을 출신

- 쉘펠라(Shephelah) 지역에 속한 농업지대

2. 주전 8세기: 미가의 활동 시기

유다 왕 요담(주전 750-735년), 아하스(주전 735-715년),

히스기야(주전 715-686년)의 통치 기간에 활동(렘 26:18)

Ⅲ. 미가의 시대적 배경



Ⅳ. 미가서의 구조와 단락 나누기

미가서의 거시구조를 파악함에 있어서, 주석가들은 크게

두 단락 또는 세 단락으로 구분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

① 두 단락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1-5장과 6-7장으로

본문을 나눈다. מִיכָה

② 미가의 구조가 심판의 위협과 회복의 희망을 반복한다고 보면서

세 단락의 구분을 주장

Ⅳ. 미가서의 구조와 단락 나누기

1장	표제 1:1	구조 I	구조 II	1장
2장	1. 여호와께서 오신다 1:2-7	심판-구원		2장
	2. 선지자의 애곡 1:8-16		위협	
3장	3. 악한 부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2:1-5			3장
	4. 미가와 땅을 강탈하는 자들 2:6-11	심판-구원		
	5.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12-13			4장
4장	6. 범죄한 통치자들 3:1-4			
	7. 평화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미가 3:5-8			5장
	8. 타락한 지도자들과 시온의 멸망 3:9-12		희망	
5장	9. 시온의 미래를 찬양함 4:1-5 (누 사 2:2-4)			
	10. 남은 자의 회복과 여호와와 통치 4:6-8			6장
	11. 고난에서 구원으로 4:9-10			
	12. 포로에서 승리로 4:11-13			7장
6장	13. 무기력한 재판관에서 이상적인 왕으로 5:1-4	심판-구원	위협	
	14. 앗수르의 멸망에 의한 평화 5:5-6			
7장	15.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 5:7-9			
	16. 군대와 거짓 종교의 제거 5:10-15			
	17. 하나님의 고소 6:1-8			
	18. 더욱 많은 고발과 선고 6:9-16			
	19. 타락한 사회에 대한 예가와 선지자의 기도 7:1-20			

V. 미가서의 주제

미가가 전하는 신탁들의 핵심

: 중앙과 지방 도시의 지주들과 지도 계층이 조직적으로

촌락의 농민들이 일구어 온 전통적인 삶의 토대를 파괴한다는 규탄

☞ 군사 및 행정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제사장과 예언자들도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고발 (2:1-11; 3:1-7, 9-11).

V. 미가서의 주제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 3:11).

참고: 고대 이스라엘의 토지사상(구약성경의 땅 신학)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
임이니라”
(레 25:23a)

- ① 땅은 여호와와
② 토지 자체는 사유재산이 아니며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님
③ 특정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자산으로서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공동의 유산**(나할라, inheritance : 基業)



참고 : 고대 이스라엘의 토지사상(구약성경의 땅 신학)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25:23b)

- ④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의
신분은 임차인
(*ger* = alien and tenants:
임시거주자, 토지임차인,
소작농, 토지사용이 허락된 자)
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유지하는 길은 율법에 따른
신앙과 윤리적 실천에 달렸음
(레 18:24-30)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임차로
=선한 청지기
:정의와 공의의 실행

참고: 고대 이스라엘의 기본 토지사상(구약성경의 땅 신학)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25:23b)

- ⑥ 누적된 죄악은 궁극적으로
땅으로부터의 추방을 초래함
(레 20:22-23; 26:27-35)
※ 또한 신 8:19-20도 참조.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님

참고: 고대 이스라엘의 기본 토지사상(구약성경의 땅 신학)

구원사적
관점에서 본
모세오경의
큰 흐름과도
관련

- 1) 땅의 주인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즉 ‘모든 생명이 생존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말기심(참고. 창 1:26-28 창조명령)
- 2) 에덴동산의 타락과 실패 이후
〈하나님 나라의 재확복구 프로그램〉
이 약속대로 착수되고 추진됨
(창세기 12장 이후 아브라함 언약의
역사적 전개 과정
=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과 그 성취)

참고: 고대 이스라엘의 기본 토지사상(구약성경의 땅 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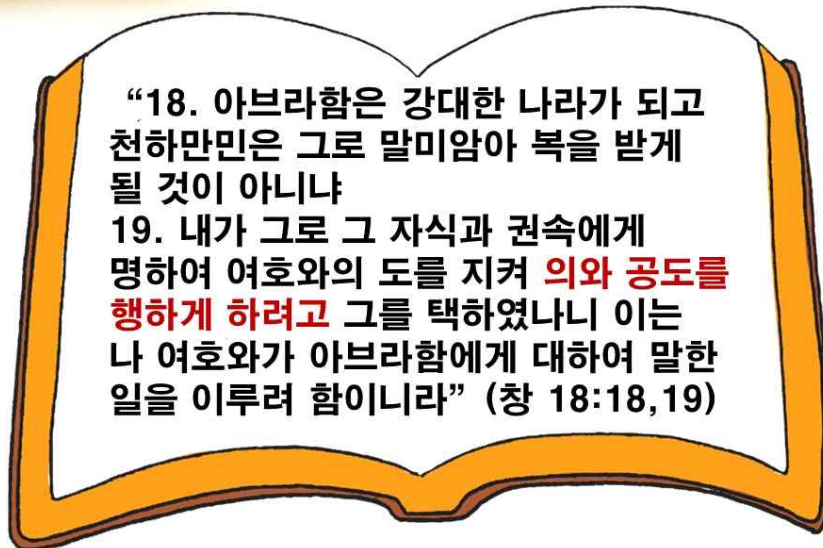
구원사적
관점에서 본
모세오경의
큰 흐름과도
관련

- 3)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
및 정착은 땅과 자녀의
약속,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라는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음
(창17:8, 창18:18, 19)

참고: 고대 이스라엘의 기본 토지사상(구약성경의 땅 신학)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을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 17:8)

참고: 고대 이스라엘의 기본 토지사상(구약성경의 땅 신학)



V. 미가서의 주제

이 시대의 사회경제사적 특징:

- 전통적 토지사상인 '나할라' 토지 제도가 주전 9세기부터 와해
- 수출중심 농업정책과 지배층의 부정부패에 의해 경제정의 붕괴
- 농업사회와 촌락공동체의 급격한 해체가 진행된 시기

☞ 그 핵심은 땅과 관련된 문제

VI. 논문의 문제제기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폐허)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 (쓰레기 더미)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3:12).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 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시더라” (6:16)

☞ 박사논문의 주제: 구체적으로 오므리와 아합의 잘못은 과연 무엇인가?